



김 종 기 의원  
(국회 농림수산위원장)

## 개방화 시대의 양돈업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개선으로 육류나 유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커가고 있으며, 특히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돈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돈업은 전업화 기업화 추세를 나타내면서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 최근년에 와서는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업은 국내시장 위주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내 공급과잉시 불황타개책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규격돈이 부족하거나 혹은, 육질이 떨어지거나 도축장의 위생시설의 미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양돈업은 개방화시대의 수출지향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불안정과 가격 또한 안정되지 못하여 양축농가가 불안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 제일의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1987년도에 28만톤이나 수입하였는데, 이중에서 대만이 48%로 거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덴마크가 33%, 미국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송비나 신선도 유지 등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난해 1% (3,000톤) 정도를 수출하였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우리 양돈업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양돈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좁은 나라 대만이 돈육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룩한 것이 아니라 품종개량이나 사양기술의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수출용 돈육생산의 의무화, 세제혜택, 수출보조금지원, 도축시설의 대형화 등에 꾸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도 금년 3월부터 중돈 모돈을 포함해서 500두 이상 사육업체(43개)에 수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출 촉진자금 30억원을 지원하여 가격하락시 원료육을 비축함으로써 가격안정과 수출 물량확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시설 등을 개선하고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금년도 수출계획 물량인 6,000톤은 이미 상반기에 3,000톤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계획대로 무난히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  
**과거의 미온적인 정책이나 양돈업계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힘을 모아  
 양돈업을 수출지향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아직은 돈육수출이 초기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 과거의 예로 보아 양돈은 짧은기간내에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변동과 가격진폭이 심하여 언제나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미온적인 정책이나 양돈업계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모두 힘을 모아 수출지향적인 전략산업으로 양돈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안정적인 공급체제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면이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축산업은 양돈을 위시해서 한 때는 기술개발이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기업축산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업적 농업시대를 맞아 농가도 여건에 따라 양돈업을 비롯한 모든 농업분야에서 부업화나 전업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데 시각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볼 때 국내수요충족과 가격안정, 그리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부업양돈이나 전업형태의 양돈도 육성해 가면서 기업양돈은 수출위주로 육성함으로써 생산과 판로 등에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화있게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는 생산성을 높이고 육질을 개선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종축개량이나 사양기술개선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종돈의 개량보급은 국·도립종축장, 축협종축장에서도 하고 있고, 자금여력이 있는 종돈업체에서도 공급하고 있으며, 종돈을 수입하고도 있고 육질이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품종개량과 사양기술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질의 돈육을 생산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하겠다. 이와 동시에 돼지고기의 부위별 차등가격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의 경우는 금년 10월부터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돼지고기의 경우도 철저한 홍보로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육질을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육질향상을 위해서는 돼지의 거세도 의무화 해야만 하겠다. 현재는 거세함으로써 오는 불이익, 즉 중간상인들이 수매가격 또는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으나 육질개선과 규격돈 확보를 위해

“

양돈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장기 발전계획을  
면밀히 세워 대처하고, 업계나 양축농가도  
기술개선, 수급조절 등을  
기하면서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

서도 거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째는 가격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현재 가격안정시책으로 수매, 비축사업을 하고 있고, 축산관측을 하여 생산, 가격 및 각종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수급조절도 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및 가격안정을 위해 보다 철저한 축산관측을 해야 하겠으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는 생산과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안정대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매·비축·가공시설 확충으로 과잉시 가격안정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축산물유통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면이 많아 변칙거래, 밀도살 등 유통부조리가 많고 유통마진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축장의 비위생처리가 문제이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의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생산자 역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유통조직이나 계약생산, 도축장의 대형화 등 돈육의 유통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다섯째는 지원체제의 강화이다.

수출촉진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용양돈에 대해 사료관세의 인하나 부가가치세 인하라든지 또는 도축세 등의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또한 당국이나 양돈업체 그리고 농가와 소비자가 협조체제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믿는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우리 양돈업은 수출초기라고 보고 성급한 생각보다는 하나 하나 차근히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인식하에서 양돈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 해 나가야 하며, 정부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면밀히 세워 대처하고, 업계나 양축농가도 기술개선, 수급조절 등을 기하면서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하리라고 믿는다. \*